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7학년도 4월 26일 1교시	출제자	양지현, 이승진, 송현호		
		반 번호: _____ 이름: _____			

※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선택형은 OMR카드에, 서술형은 서술형 답안지에 작성하세요.

[1-7, 서술형 1-4]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시제가 다른 하나는? (3점)

- ① 엄마에게 혼났죠.
- ② 나는 꿈을 꾸었죠.
- ③ 달에게 말을 했죠.
- ④ 지난주에 언니와 영화를 보았다.
- 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2. 다음 중 <보기>와 같은 높임법이 쓰인 것은? (3점)

_____ < 보기 > _____
주로 ‘-(으)시’를 통해 나타내며, 조사 ‘께서’나 ‘계시다, 잡수시다’ 등의 특수한 어휘를 통해 나타낸다.

- ① 준경아, 어서 와.
- ② 선생님, 어서 오세요.
- ③ 아버지, 저랑 농구해요.
- ④ 정말 어머니께서 가시네.
- ⑤ 우리가 할머니께 여쭙어 보자.

3. 다음 중 사동 표현이 쓰인 문장은? (3점)

- ① 미희가 책을 읽는다.
- ② 개미가 코끼리를 물었다.
- ③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 ④ 철수가 물과 기름을 섞었다.
- ⑤ 승환이가 줄을 반듯하게 잘 맞게 했다.

4. 다음 중 피동 표현이 쓰인 문장은? (3점)

- ① 난롯불이 열음을 녹인다.
- ② 동생이 언니에게 업혔다.
- ③ 아이들이 엄마를 웃긴다.
- ④ 진영이가 아기를 울렸다.
- ⑤ 엄마는 흰죽을 쑤어서 나에게 먹이셨다.

5. 다음 중 문법 요소가 바르게 사용된 것은? (3점)

- ① 음식이 전혀 못 맞아요.
- ② 색깔이 별로 마음에 드네.
- ③ 애야, 어서 와서 진지 들어라.
- ④ 애들아, 이 곳에서 수영하지 마라.
- ⑤ 찾으시는 제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6. <보기>의 예문에서 상대높임법 중 비격식체를 사용한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_____ < 보기 > _____

- ㉠ 너는 여기 앉아.
- ㉡ 어서 집에 들어가게.
- ㉢ 영희야, 너부터 해라.
- ㉣ 과장님, 이제 오세요?
- ㉤ 너도 같이 가자고 해 봐.
- ㉥ 친구들은 모두 같이 갑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7. <보기>의 대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_____ < 보기 > _____

- ㉠ 재석 : 저기 명수가 할머니를 모시고 온다.
- ㉡ 하하 : 정말 할머니께서 오시네.
- ㉢ 광수 : 할머니, 안녕하세요?
- ㉣ 종국 : 빨리 할머니께 꽃다발을 드리자.
- ㉤ 개리 : 할머니, 꽃다발을 드릴게요.

- ① ㉠ :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단어가 나타난다.
- ② ㉡ :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있다.
- ③ ㉢ :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 ④ ㉣ : 서술의 객체를 높일 때 쓰는 조사를 사용했다.
- ⑤ ㉤ :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서술어가 사용되었다.

<서술형 1>

<보기> 문장을 두 유형의 사동 표현으로 바꾸어 쓰시오. (6점)

_____ < 보기 > _____
철수가 집을 졌다.

(1) : _____ (3점)

(2) : _____ (3점)

[조건] 가. (1), (2) 모두 서술형 어미 ‘~다’로 끝나는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나. 2개의 문장을 정확하게 쓸 것.

다. 반드시 ‘영희가’를 주어로 하여 문장을 작성할 것.

[배점] 가. 문장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각각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린 경우 : 각각 1점 감점

☞ 뒷면에 계속

<서술형 2>

<보기>의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올바른 높임 표현으로 바꾸어 쓰시오. (4점)

은호 : 철수야, 선생님이 너 오시래.

[조건] 밑줄 친 부분만 고쳐 쓸 것.

[배점] 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1점 감점
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 : 1점 감점

<서술형 3>

<보기> 문장을 사동은 주동으로, 피동은 능동으로 바꾸어 쓰시오. (4점)

- ㉠ 투기 세력이 유가를 올리고 있다.
㉡ 으뜸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 : _____ (2점)
(2) : _____ (2점)

[조건] (1), (2) 모두 서술형 어미 ‘~다’로 끝나는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배점] 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각각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린 경우 : 각각 1점 감점

<서술형 4>

<보기>의 ㉠, ㉡을 보고, 부정문의 종류와 의미 차이를 서술하시오. (6점)

- ㉠ 중기는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
㉡ 중기는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

(1) 종류(2점)
(2) 의미 차이(4점)

[조건] (1), (2) 모두 서술형 어미 ‘~다’로 끝나는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배점] 문장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각각 1점 감점

[8-11, 서술형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나)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다) 뒤뜰 어둠 속에

나뭇짐을 부려 놓고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는 무 한 쪽을 예쁘게 깎아 내셨다.

말할 힘조차 없는지

무쪽을 받아 든 채

아궁이 앞에 털썩 주저앉으시는데

㉢환히 드러난 아버지 이마에

흘러 난 진땀 마르지 않고 있었다.

어두워진 산길에서

후들거리는 발끝걸음으로

어둠길 가늠하셨겠지.

불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다시 이어지는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

그 모든 소리들 한데 어울려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다.

8. (가)~(다)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 : 유사한 문장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경쾌하고 명랑한 분위기가 난다.
② (나) : 시적화자는 ‘연탄재’라는 소재에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③ (다) : 추상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화목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④ (가) : 힘든 상황에서 절망을 느끼는 화자의 고뇌와 극복 의지가 잘 나타난다.
⑤ (다) : 향토적인 소재를 사용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했다.

9. ㉠, ㉡과 같은 표현법이 쓰인 구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두 개 고르면? (4점)

- ① ㉡ - 별이 내게 속삭였다.
② ㉠ - 날이 밝을수록 침침하다.
③ ㉠ -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④ ㉡ -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⑤ ㉡ -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10. (가), (나) 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옳은 것은? (3점)

- ①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종교에 귀의하는 삶
②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
③ 타인을 위해 봉사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④ 원리 원칙을 중시하여 법을 준수하면서 사는 삶
⑤ 인위적인 것을 피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삶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7학년도 4월 26일 1교시	출제자	양지현, 이승진, 송현호		
		반 번호:		이름:	

11.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3점)

① 승현 : 이 시는 단란하고 사랑이 넘치는 현재의 가족 분위기를 정감 있게 표현했어.

② 지용 : 마지막 부분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된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했네.

③ 태양 : 이 시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심상을 사용해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

④ 승리 : 이렇게 심상을 활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서지.

⑤ 대성 : ㉠과 ㉡은 모두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며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표현했군.

<서술형 5>

(가) 시의 []에 들어 있는 부분의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고, 그와 같은 의미가 담긴 구절을 두 군데 찾아 쓰시오. (5점)

(1) (가) 시의 []에 들어 있는 부분의 의미(3점)

(2) (가) 시에서 그와 같은 의미가 담긴 행 두 군데(2점)

[조건] 가. (1) 작성 시, ‘~를(을) 의미한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나. (2) 작성 시, 같은 의미가 담긴 행만 정확하게 쓸 것.

[배점] 가. (1) 작성 시, 문장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1점 감점

나. (2) 작성 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행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 한 군데당 1점 감점

다.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맥상 어색한 표현이 있는 경우 : 1점 감점

<서술형 6>

(다) 시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5점)

[조건] 가. 두 내용을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쓰되, ‘~다’로 끝나는 문장으로 서술할 것.

나. 말하는 이와 말하는 대상, 분위기가 드러나도록 서술할 것.

[배점] 가. 문장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1점 감점

나. 말하는 이나 말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2점 감점

다. 분위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1점 감점

라.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맥상 어색한 표현이 있는 경우 : 1점 감점

[12-13, 서술형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지고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 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 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그 책의 내용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려나왔다.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거듭 펴서 읽었을 뿐인데도.

(나)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 활동 시간에 나는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하여 내게로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을 처음 해 보았다. (중략)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특별 활동 시간은 없어졌다. 내가 1학기의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부였다. 하지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그 책이 내 일생을 바꾸었다.

(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의 일원이 되는 것은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 준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 준다. 책은 지구 상에서 인간이라는 종(種)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지도 모른다. (A)고.

1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교훈적, 회상적인 성격이 나타나 있다.

② 주제는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이다.

③ 글 속의 ‘나’는 작가가 꾸며낸 인물이다.

④ 글쓴이의 중학교 시절 특별 활동의 경험을 소재로 하였다.

⑤ 무협지를 읽은 느낌과 고전 소설을 읽은 느낌의 차이를 표현했다.

<서술형 7>

글쓴이가 책을 보약에 빗대어 표현한 이유가 나타나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찾아서 서술하시오. (5점)

[조건] 가. ‘~때문이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나. 반드시 한 문장으로 쓸 것.

[배점] 가.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린 경우 : 1점 감점

13. 글 (다)의 (A)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3점)

① 모르는 게 약이다

② 책 속에 길이 있다

③ 책을 함부로 다루지 말자

④ 글쓰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⑤ 조상의 얼을 되살려야 한다

☞ 뒷면에 계속

☞ 뒷면에 계속

[14-19, 서술형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처럼 나를 방문한 친구 하인리히 모어가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서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해는 저물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가파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호수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마침, 내 어린 아들이 밤 인사를 하고 나가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중략)
내가 담배를 피우는 동안 밖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밤을 수놓았고, 내 친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 어느 날, 나는 우리 고장에서 보기 드문 푸른 날개의 나비를 잡았다네. 날개를 펴서 그것을 말린 다음에, 나는 하도 마음에 흡족하고 자랑스러워, 꼭 이웃집 아이에게만은 보여 주리라고 생각했지. 이웃집 아이란, 뜰 건너편 집에 사는 교원의 아들 에밀이었어. (중략) 어쨌든 모든 점에서 그는 모범 소년이었어. 그 때문에 나는 그에게 몹시 감탄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를 미워했던 게지. 그는 무슨 전문가나 되는 듯이 그것을 감정하고 나더니, 희귀한 것임을 자기도 인정하면서, 20페니히의 값은 된다고 하였지. 그러나 그는 이내 트집을 잡기 시작하여, 날개를 편 방식이 나쁘다느니, 오른쪽 더듬이가 비틀어졌다느니, 왼쪽 더듬이가 뻗어 있다느니, 그 위에 다리가 두 개 떨어졌다느니 하며, 제법 그럴듯한 결합을 늘어놓았어.

(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을 뺏아 나방을 책상 위에다 꺼내 놓았지. 나는 그것을 보기 전에 벌써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것쯤은 미리 짐작했었어. 그저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아니나 다를까, 나방은 보기 싫게 망그러져서 앞날개 하나와 더듬이 한 개가 떨어져 버렸어. 떨어진 날개를 조심스레 주머니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깐, 그나마 산산이 바스러져서 이제는 이어 붙일 수조차 없게 되었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그 아름답고 찬란한 나방을 내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더 괴로운 일이었다네. 날개의 갈색 분이 온통 나의 손 끝에 묻은 것을 보았지. 그리고 또, 날개의 바스러진 조각들이 책상 위에 이리저리 흩어진 것을 보았어.

(라) 지금도 아름다운 나비를 보면, 이따금 그때의 열정이 몸에 스미는 듯 느껴진다네. 그럴 때면, 나는 잠시 어린아이만이 느낄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심정에 사로잡히곤 하지. (중략) 나는 마치 보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포충망을 들고 나비를 노리고 다녔어. 그리하여 아리따운 나비를 발견하면-특별히 진귀한 것이 아니라도 좋았지. 햇볕 아래 즐고 있는, 꽃 위에 앉아서 빛깔이 고운 날개를 호흡과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잡는 기쁨에 숨이막힐 지경이 되어, 가만가만 다가가곤 했어. 반짝이는 반점 하나 하나가 눈에 뚜렷이 보이면, 그 긴장과 환희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네. 그때의 그 미묘한 기쁨과 거센 욕망의 교차는 그 뒤엔 자주 느낄 수 없었지.

(마) 어머니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네.

“①에밀을 찾아가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네가 가진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대신 가지라고 말해 보렴.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지.” (중략)

에밀이 그 날개를 손질하느라고 무척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네. 그는 날개의 조각들을 정성껏 주워 모아서 작은 압지 위에 펴 놓았어.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본디 모양으로 바로잡힐 가망은 없었고, 더듬이도 떨어진 그대로였어. 나는 그제야 그것이 나의 소행임을 밝혔다네. 그랬더니 에밀은 격분하지도, 큰소리로 꾸짖지도 않고, 혀를 차며 한동안 나를 지켜보다가 나직한 소리로,

“알았어. 말하자면 너는 그런 자식이란 말이지?”
라고 하더군.

(바) 이것을 본 나는, 이 보배를 손에 넣고 싶은 건딜 수 없는 욕망에 그만 난생 처음으로 도둑질을 했다네. 나방은 벌써 말라 있어서, 손을 대는 정도로는 형체가 일그러지지 않았어. 나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받쳐 들고 에밀의 방을 나왔다네. 그때 나는, 어떤 커다란 만족감 이외에 아무 생각도 없었지.

나는 나방을 오른손에 감추고 층계를 내려오는데 그때, 아래편에서 위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났어. 순간, 나는 내가 비겁한 놈이란 것을 깨달았다네. 그와 동시에 들키면 어쩌나 하는 무서운 불안에 사로잡혀, 나는 본능적으로 나방을 감춘 손을 그대로 양복저고리 주머니 속에다 찔러 넣었어. 그리고 천천히 발을 떼어 놓았지. 그러면서 속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부끄러운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지.

(사) 그때 나는 비로소, 한번 저지른 일은 어떻게 해도 바로잡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네.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키스만을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고마웠지. 어머니는 나더러 그만 잠자리에 들라고 하셨어. 여느 날보다는 시간이 늦은 편이기는 했지. 그러나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만히 식당으로 가서 갈색의 두겹고 커다란 종이 상자를 찾아 가지고 와서 침대 위에 올려놓고, 어둠 속에서 뚜껑을 열었어. 그리고 그 속에 든 나비들을 끄집어내어 손끝으로 비벼서 못쓰게 가루를 만들었다네.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7학년도 4월 26일 1교시	출제자	양지현, 이승진, 송현호		
		반 번호: _____ 이름: _____			

14. (다)~(사)의 글의 순서가 옳게 제시된 것은? (2점)

① (다)-(라)-(바)-(마)-(사)
② (다)-(바)-(마)-(라)-(사)
③ (라)-(바)-(다)-(마)-(사)
④ (라)-(바)-(마)-(다)-(사)
⑤ (마)-(다)-(라)-(바)-(사)

15. 이와 같은 갈래의 글에 대한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을 두 개 고르면? (3점)

① 태현 : 수필과의 공통점은 정해진 형식대로 쓰인다는 점이야.
② 준호 : 시는 운문문학인데 비해, 이 글과 수필은 산문문학이야.
③ 중민 : 소설에 그려진 흥미로운 사건들을 읽으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④ 동구 : 현실 세계의 삶을 반영하여 쓰여진 허구적 이야기라는 것도 수필과의 공통점이지.
⑤ 준영 : 수필과 소설에 나타난 삶을 통하여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16.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3점)

① 사건이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② 묘사와 서술의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여 주고 있다.
④ 사건을 겪는 모든 인물들의 생각과 심리가 자세히 드러나 있다.
⑤ 액자식으로 구성된 두 개의 이야기에 주인공의 성장 과정이 나타난다.

17. ㉠에 나타난 가치관은? (2점)

① 정직(正直) ② 겸양(謙讓) ③ 중용(中庸)
④ 청빈(淸貧) ⑤ 관용(寬容)

18. ‘나’의 심리에 대해 가장 옳게 제시한 것은? (3점)

① 에밀에게 푸른 나비를 보여 준 이후에도 흡족함.
② 나비 수집은 기쁨을 준 많은 활동 중에서 하나에 불과함.
③ 공작나방을 도둑질하자마자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때문에 괴로워짐.
④ 계획적으로 에밀의 공작나방을 훔치려고 했으나, 실패하여 아쉬움을 느낌.
⑤ 에밀의 방에서 공작나방을 가지고 나와 층계에서 인기척을 느낀 후 양심의 가책을 느낌.

19. 외화와 내화의 서술자 및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외화와 내화의 서술자는 동일한 인물이다.
② 외화와 내화 모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③ 외화는 ‘하인리히 모어’의 관점에서 진행된다.
④ 외화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내화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⑤ 외화에서는 서술자가 소설 안에 존재하며, 내화에서는 서술자가 소설 밖에 존재한다.

<서술형 8>

(마)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을 쓰고, 갈등의 내용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4점)

(1) 갈등의 양상(2점)
(2) 갈등의 내용(2점)

[조건] 가. (1), (2) 답안 모두은 ‘~다’로 끝나는 문장으로 서술할 것.
나. (2) 작성 시,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할 것.

[배점] 가. 문장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1점 감점
나.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맥상 어색한 표현이 있는 경우 : 1점 감점

<서술형 9>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주인공이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사)에서 찾아 서술하십시오. (6점)

(1)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3점)
(2) 주인공이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3점)

[조건] 가. (1), (2) 모두 ‘~다’로 끝나는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나. (2) 작성 시, 반드시 (사)에서 찾아 쓸 것.

[배점] 가. 문장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각각 1점 감점
나. (2) 작성 시, (사)에서 찾지 않은 경우 : 오답 처리함.

-----<끝>-----

※ 선택형 19문항, 서술형 9문항입니다. OMR카드 마킹 여부와 서술형 답안 작성을 꼭 확인하세요.

중간고사 지필평가(점수)		합 계 (점수)
(문항 당 배점 : 각 문항에 표기)		
선택형(19문항)	서술형(9문항)	
55	45	100

[객관식]

문항	정답	문항	정답
1	⑤	11	③
2	④	12	③
3	⑤	13	②
4	②	14	③
5	④	15	①, ④
6	②	16	②
7	⑤	17	①
8	②	18	⑤
9	①, ④	19	④
10	③	이하	여백

[서술형]

문항	정답
1	(1) 영희가 철수에게 짐을 지웠다. (2) 영희가 철수에게 짐을 지게 했다.
2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3	(1) 투기 세력에 의해 유가가 오르고 있다. (2) 기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4	(1) 부정문의 종류에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있다. (2) ‘안’ 부정문은 주체의 의지 때문에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비해 ‘못’ 부정문은 외부의 원인 때문에 행위가 일어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5	(1)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2) ①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②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6	말하는 이는 자녀(자식)로, 화목한 가족의 저녁 풍경을 회상하고 있다.
7	책을 통해 정신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8	(1) 외적 갈등이다. (2) ‘나’ 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만, 에밀은 용서해주지 않는다. (‘나’ 와 에밀이 갈등을 겪고 있다.)
9	(1) 한번 저지른 일은 어떻게 해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2) 나비들을 꼬집어 내어 손끝으로 비벼서 못쓰게 가루로 만들었다.